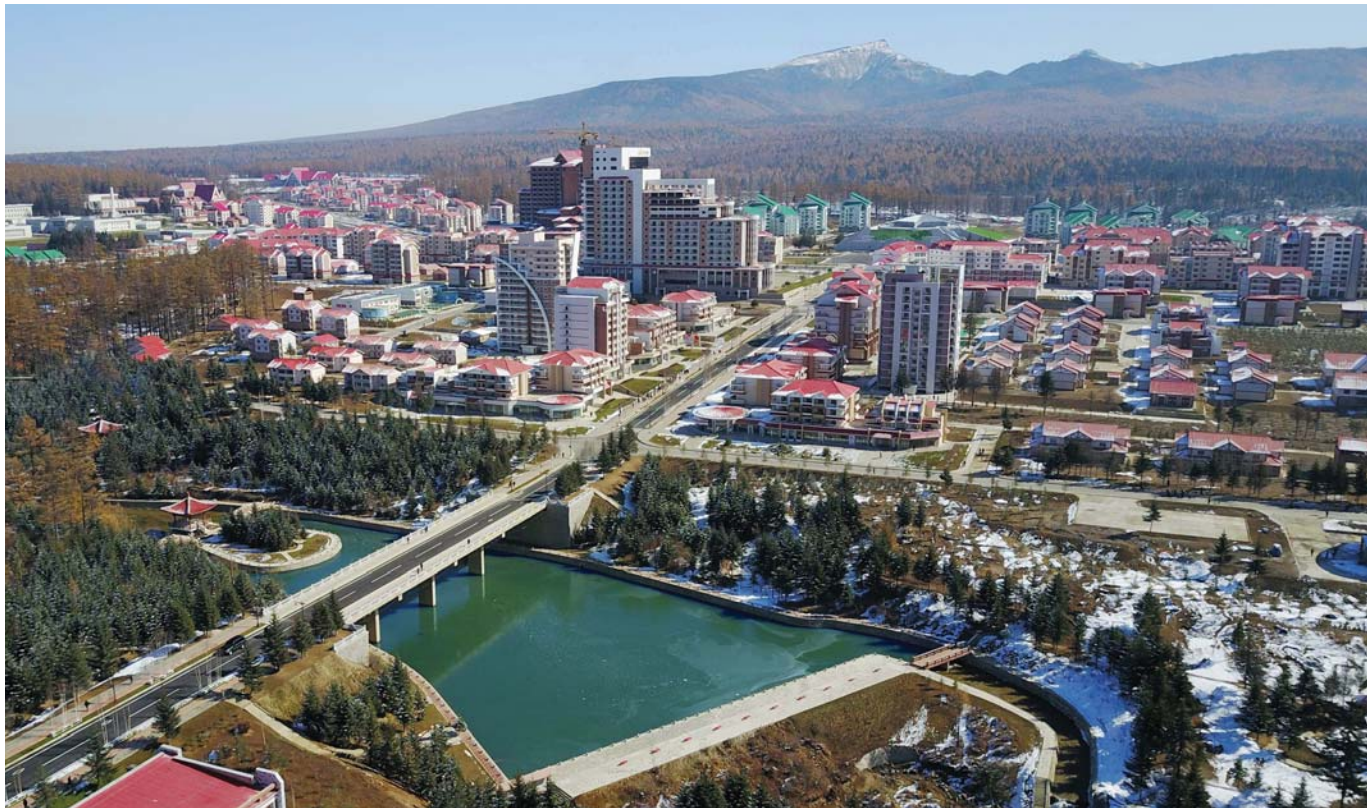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들어쥐고

백두대지에 펼쳐진 전변의 새 모습



지난해 12월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리상도시 삼지연군(당시) 읍지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과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천지개벽된 삼지연시는 민족성과 현대성, 북부고산지대의 특성이 훌륭히 결합되고 신전리성, 선미학성의 원칙에서 모든 건축물들의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예술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사회주의명명의 축대로 되고있다.

백두산지구는 한해중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내려 건설물을 하나 일떠세우자고 해도 쉽지 않다.

그런데 백두산아래 첫 동네인 이곳에 천지개벽의 새 모습이 펼쳐졌다. 원래 하나의 군이었던것이 거대한 산간도시로 전변되어 찾아오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백두대지에 펼쳐진 눈부신 전변, 이것은 결코 하늘이 준 기적도, 세월이 가져다준 천지조화도 아니다.

그것은 삼지연땅을 사회주의만세소리 높이 울려 퍼지고 로동당시대의 문명을 대표하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꾸려갈 드높은 신념을 안고 펼쳐나선 건설자들과 온 나라 인민의 불같은 애국충정, 무궁무진한 자력갱생위력이 안아온 대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삼지연시꾸리기는 수백정보의 넓은 부지에 4000여세대의 소층, 다층살림집들과

380여동의 공공 및 산업건물을 새로 일떠세우고 개건해야 하는 대단히 방대하고 어려운 과제였다.

하나의 큰 산을 통채로 들어내는데와 맞먹는 토량을 처리하고 8~10m깊이까지 기초굴착을 해야 하는 공사는 광란하는 자연과의 대결전이었다.

봄철에도 땅속 깊은 곳까지 얼어붙은 대지를 한토막 한토막 가내야 했고 억수로 내리는 비에 건설장은 수렁창으로 변하여 물진기재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하지만 건설자들은 폭우속에서도 허리치는 감탕에 뛰어들어 진창우에 통나무를 깔면서 한치한치 전진해나갔다.

시련과 난관에 부닥칠수록 공사장에는 힘있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 돌격대원들의 랑만이 차넣었다.

건설자들은 필승의 신심을 안고 군인형동작전으로 2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십만㎡의 토량을 처리함으로써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제겼다.

건설자들은 수십의 굴절제를 확보하여 콘크리트양생기를 단축하고 팔조공크리드치기량을 2배로 끌어올렸으며 1만여㎡의 보온덮개를 지어놓고 -2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속에서도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었다.

건설자들의 돌격정신에 의해 수백m에 달하는 허형천호안공사도 2일 동안에 끝났

으며 살림집건설, 도로건설을 비롯하여 많은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항일대전의 나날 밀림속에 나래쳤던 연길폭탄정신, 자력갱생의 마치소리가 건설장마다에 힘차게 울려 퍼지는 속에 자제로 꾸린 견재생산기자들이 용을 썼다.

곳곳에 일떠선 블로코생산장, 인조대리석생산기 등에서 공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고급색블로코와 각종 경계석을 비롯하여 질 좋은 견재들이 광광 생산되었다.

백두전역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창조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으로 이루어져야 더욱 빛난다는 철리를 깊이 새겨안은 건설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해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도입되어 건설속도가 종래보다 2배이상으로 빨라지게 되었다.

미끄럼식위틀에 의한 일체식벽체시공방법을 창안하여 목재를 90%로 절약하면서도 이들에 한계 충족 질적으로 올려세운것을 비롯하여 북부고산지대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건설공법으로 석달도 안되는 기간에 천수령세대의 살림집을 훌륭히 개건하였다.

새 기술창조열풍이 더욱 고조되어 삼지연에 혼한 부사로 천연돌질감부사장식재, 부사기단재, 부사란주 등의 견재들을 만들어 건설에 받아들일것을 비롯하

여 마감견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성과도 컸다.

건설자들은 자제로 미분쇄공정과 교반공정을 확립하여 많은 부사유체재와 질 좋은 외장재, 내장재를 생산하였다.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해 공장, 기업소, 학교, 탁아소, 병원 등 많은 대상건설의 마감전투가 본격화되어 최단기간에 끝났다.

철길건설자들은 결사전을 벌여 수백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수십개의 차굴, 다리, 12만여㎡의 용벽공사, 여러개의 역사건설 등 방대한 철길공사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해산-삼지연철길을 개통하여 승리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렸다.

건설자들은 원림형성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운데 맞게 10여만㎡의 부식도를 확보해 놓고 백두산지구에서 잘 자라는 종비나무, 붓나무를 비롯한 90여만그루의 나무와 100여만㎡의 지피식물심기를 하여 읍지구의 면모를 더욱 이채롭게 단장하였다.

참으로 백두산지 삼지연 땅의 대면혁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자기 힘을 믿고 하나로 굳게 뭉쳐 일떠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력갱생의 불패의 위력이 다시금 힘있게 파시된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흥범식

화학공업발전의 새로운 활로

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과학, 우리 제품

천연탄산광천수-강서약수

평양을 비롯한 곳곳마다에서 약수운반용자동차들이 뒤집어 달리고있다.

예로부터 그 맛과 약효가 비할바없이 뛰어나 조선의 특산이라 부르는 강서약수를 싣고 달리는 차들이다.

강서약수공장에서는 새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팔팔 솟아나는 약수를 대량적으로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고있다.

약산성인 강서약수는 위분비정상화, 장관의 운동, 흡수촉진, 리담, 리노, 대사촉진, 조절작용이 있는것으로 하여 만성위염, 위 및 십이지장염, 위수술후유증, 만성소대장염, 동맥경화증, 비만증, 당뇨병 등의 치료에서 뛰어난 효과를 나타낸다.

강서약수는 세계적으로도 품질이 인정된 보기 드문 천연탄산광천수인것으로 하여 1982년에 천연기념물 국가지정 제56호로 등록되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동류중서와 품질인증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서 발

리 일수: 화학공업은 공업의 기초이고 인민경제의 주라격전선이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담보하기 위해서는 화학공업부문이 먼저 들고일어나야 한다.

화학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그 어떤 외적요인에도 무관하게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이룩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에서는 화학공업의 구조를 주체화, 현대화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화학공업을 지속적인 발전케도에 올려세울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혁명적인 대책이 취해졌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담보하기 위해서는 화학공업부문이 먼저 들고일어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화학공업전반을 추켜세우기 위한 당면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마친 기사는 리 일수 화학공업성 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인 지침을 받아안은 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의 심정이 남다르라고 본다.

리 일수: 화학공업부문의 창조물인 순천린비료공장을 일떠세워 정면돌파전의 첫 승전포성을 울린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련속공격전을 과감히 전개해가고있다.

우선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여 화학공업의 근간을 새롭게 세우고 그 전망을 열어놓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건설에 참가한 기

술자, 로동자들은 화학공업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 나가는 기를, 밀친을 마련하는 무겁고도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다는 자각을 안고 대상과제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남흥과 홍남을 비롯한 화학공업기지들에서는 비료생산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능력확장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르렀고 홍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 농민들에게 판매를 다그치나가고있다.

그리고 자체의 원료에 의거한 카리비로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되고있다.

현존화학공장들을 추켜세우고 생산을 활성화하며 절약형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홍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 영양액비료생산공정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으며 2.8비료연합기업소에서 가정소다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준비가 계속될것을 비롯하여 여러 화학공장에서 생산공정을 새로 확립하거나 기술개건하기 위한 사업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새로운 원료에 의거하는 화학공업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 화학공업부문의 인재를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도 전망성있게 추진되고있다.

화학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들은 국내 원료와 자재에 의거하여 각종 화학제품을 수요대로 중단없이 만들어낼수 있는 에네르기절약형, 로력절약형, 자원절약형, 기술절약형, 개발창조형의 다방면적인 생산체제를 갖추는데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풀기 위해 사색과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이와 함께 탄소하나화학공업에 쓰이는 촉매개발을 적극 다그치면서 촉매기술, 촉매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물질체제를 갖추어나가는 사업에도 힘을 넣고 있다.

화학공업부문만이 아니라 련관부문과 단위들에서도 화학공업의 발전이자 자기 부분, 자기 단위의 발전이라는 관점을 지니고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화학공업부문을 적극 지원해주고있다.

우리는 나라의 자립경제를 떠받드는 쌍기둥의 하나인 화학공업을 기어이 추켜세워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나갈 것이다.



은 문명을 창조해가는 인민들의 힘찬 발걸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는 전우역. 화려하게 단장한 전우역을 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말한다.

《전우역이 불러보게 달라졌다. 대대손손 물려줄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우리의 지하철도가 나날이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오는 공화국의 기상, 새로

평양의 4.25문화회관이 마주보이는 지하철도 전우역이 올해에 들어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었다.

현대적이자 나에게 개건된 지상역사와 어울리게 내부 또한 지하공전을 방불케 하고있다.

얼마전 우리가 전우역안에 들어서니 오각별을 형상한 대형천정조명이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사진작품들로 장식한 계단

승강기구간과 지하역홀로 가는 연결복도는 오가는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천지개벽된 삼지연시와 중평남새실농장, 양덕은원분화휴양지의 새 모습, 창건기

리와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의 황홀경 등을 보여주는 사진작품들을 보면서 자리를 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속에 복받은 삶을 누려

가는 년로자들의 모습, 배움의 꿈과 희망을 꽃피워가는 학생소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수 있었고 로라스케트바람, 승마바람이 안겨주는 쾌감을 느낄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화려하게 장식된 지하역홀의 기둥벽면들의 사진들에서도 행복에 넘친 인민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유원지에서 즐거운 한때

